

# 눈치싸움하다 끝난 원구성 첫 협상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오늘부터 원내수석 실무협상  
의장단·상임위 배분 '협로'  
원내 마무리 사실상 불가



“빨리 마무리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가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상견례 성격의 이날 회동은 50분가량 이어졌다.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방대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 만큼 첫 만남에서는 여야 간 탐색전이 벌어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모임에서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원 구성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 목표로 정한 '6월 말까지' 원 구성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어 신뢰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원 구성이) 이번 달까지는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내용까지의 진전은 전혀 없었다"며 "상대 패를 잃으려고 다들 눈치작전만 았다. 완전한 탐색전이었던"고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에 예고된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이 원 구성 협상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

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비공개 협상 전 여야 간 기 싸움도 펼쳐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받들고 국회의 정해진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이어 지방 권력까지 사실상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했는데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마저도 민주당이 독식해버린다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균형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독단,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반기 원 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허심탄화한 대화와 상식에 입각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성의와 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라고, 한국당도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과거에 (원 구성 협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 있었다면 관행을 뛰어넘고, 국회법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지 기대한다"며 "그동안 논의가 중단된 선거구제 개편도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펼쳐질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위가 유지된다면 의석수 분포에 따라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가 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

# 靑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이낙연 총리 건의...문대통령 몸살감기 주말까지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혁신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의 회의 연기 건의는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

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 감기에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주치의는 대통령에게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28, 29일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 26일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 26일 (부산) 일정은 폭우와 낙뢰로 인해 취소된 것이고, (그날) 문 대통령은 차를 타고 헬기 앞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초심 찾겠다"

바른미래 당직자 오찬...정계 은퇴론 선 그어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대외활동을 자제해 온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7일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나 '초심'을 강조하며 정치 활동 재개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안 전 의원이 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 뒤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5일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직자들과의 오찬에서 '정공이 끝은 아니다'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명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완전히 마지막도 아니다"라며 "실패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일을 계속하려는 용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성공하면 자만

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실패하면 좌절해서 포기하기 쉬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성공이든 실패든 계속 용기를 갖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처칠이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정계 은퇴론'에 사실상 선을 그으며 계속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안 전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는 못 가지고 있다"며 "추후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기회를 갖겠다"고만 말했다. 안 전 의원은 당직자들과의 만남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김종인 모델' 전권 비대위 논의

김성태 "권한 더 강해야" ... 친박계·중진 반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당 쇄신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종인 모델'이 회자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 '2020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비대위원장에게 쥐어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친노(친 노무현계) 패권 청산'을 내세워 '이념정당', '친노' 색채를 걷어내고 새 인물을 영입하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이때문에 김 대행이 '김종인 모델'을 거론한 것은 비대위원장에게 현역 의원들의 차

기 총선 불출마 등 인적청산 작업을 주도할 강력한 칼자루를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년 전 민주당 상황과 현재 한국당이 처한 여건이 여러모로 달라 김종인 모델의 벤치마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선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임시체제인 비대위가 강력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는 "지금 당을 추스르고 화합시킬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또 당시 민주당에는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내 입지가 확고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쇄신에 집중하도록 지원사격을 했으나, 지금의 한국당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 의원들과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해온 일부 중진 의원들이 관리형 비대위를 원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 전 대표는 통화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靑 비서관 '지역위 직무대행' 유지 내주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의 지역구 지역위원장 대행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다음 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지역위원회의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할지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에 조직강

화특별위원회를 하니 수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부수석, 나소영 자치분권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